



2만불시대를 열어갈 '벤처기업 주도의 인력 양성' 필요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자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동시에 2만불시대를 열어갈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청년실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 벤처기업이 그들을 위해 해줄 몫은 무엇인지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에게 들어보았다.



글 / 조 현 정 (비트컴퓨터 대표)

우 리 벤처기업들의 최대 고민은 자금과 R&D인력 확보이다. 모집광고를 내면 지원자는 많지만 쓸만한 인물이 없다. 일전에 한 지원자에게 준비된 실력 없이 어떤 배짱으로 지원했냐고 물어 봤더니 회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건네는 면접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1년 후에 필요할 인력을 예측하고 교육하는 기업은 드물다.

청년실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작년, 취업사이트 잡링크에서는 1천여 명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실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정부 36.2%, 대학 24.7%, 기업 18.5%, 본인의 책임이라고 답한 사람은 17.1%였다. 본인보다 사회의 책임이 80%나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140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니 그 이후는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 같다.

사회 선배로서 느끼는 청년실업의 책임은 80% 넘게 본인에게 있다고 본다. 대학에서 이수한 140학점은 그리 많은 학습량도 아니다. 4년간 수업 이외의 시간은 자기개발을 위해 할애해야 한다. 전공공부와 인성교육을 충분히 하면서 전공 중 특정분야를 집중학습한 후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

간혹 취업박람회나 청년실업대책모임에 가보면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메이크업 방법, 이력서를 잘 쓰는 법, 답변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스에 지원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지원자들은 실력 쌓기보다 면접관의 눈을 순간적으로 흡족하게 해서 취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런 로또복권식 입사는 절대 없다. 실력만 있다면 100% 취업되는 벤처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경력자 중심으로 인력채용패턴이 변화

지방대 학생들을 만나보면 처음부터 차별을 받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다고 한다. 사실 전문분야의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만 있으면 지방대학 출신이든 비전공자이든 중요치 않다. 기업들은 당장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환영한다. 과거의 전통산업은 시장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에



채용시 준비되지 못한 지원자들을 그냥 불합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안내해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작은 실천일 것이다.



맞는 인력을 미리 채용해 교육했다. 그러나 기술 중심 벤처형 기업의 사업모델은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다. 이런 시장 트렌드 때문에 즉시 사용 가능한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채용되어야 한다. 적정 수준의 능력만 있으면 취업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의 인력채용패턴에서도 읽을 수 있다. 1980년대 말까지 대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졸업도 하지 않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재를 입도선매했다. 2000년 이전까지도 당해 대졸예정자들을 모집해 그룹연수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 현업에 배치했다. 이때는 학벌과 성적순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했지만, 최근에는 신입보다 경력자의 채용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방대학과 학과성적은 중요치 않고 기업에 당장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력이라면 수시로 채용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국내 IT교육수요의 감소

5년 전 일본의 IT업계 리더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를 기피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 결과 현재 일본 IT업계에는 한국을 포함해 동남아국가의 프로그래머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기 위해 일본어 강사까지 파견하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앞으로는 한국이 문제다. 요즘 교육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IT교육기관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어렵고 힘든 소프트웨어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5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인도, 중국, 몽고 등지에서 인력을 수입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의 일본처럼 한국도 자국 강사를 현지에 파견해 인력을 모집해와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여러 분야에서 2년 이내로 좁혀졌다고 한다. 지금처럼 젊은 IT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이 격차는 더욱 좁아져 결국 중국에게 추월 당하고 말 것이다.

2만불시대를 열 기업의 책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 '벤처는 실패한 정책이 아니며, 벤처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했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벤처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우수 인력 중 상당수가 고도성장 중인 대기업의 경력자로 채용되었다. 벤처붐이 일 때 대기업 연구원은 벤처창업에 주도했었고, 이제는 벤처에서 교육되어진 경력자들이 대기업에 쉽게 채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벤처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파생하므로, 스톡옵션제도 개선, 채용 인센티브 제도 확대, 개발자들의 갑근세 할인이 되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 중이다.

이공계 기피와 맞물려 우리 벤처인들은 함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기술인을 절대 다수 확보해야만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채용시 준비되지 못한 지원자들을 그냥 불합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안내해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작은 실천일 것이다.